

책의신간

설원의 동굴



티벳인들의 고대전설 가운데 여성 수행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만을 골라 엮은 <설원의 동굴(Cave in the Snow)>이 출간됐다. 저자...

그가 부처되기 전에



7~8세 아동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시달타 전기 <그가 부처되기 전에(Before He Was Buddha)>가 출간됐다.

미국의 아동들에게 수행을 가르치는 히말라야의 사타타사 선사(일본)가 쓴 이 책은 시달타 유년기의 총명함과 청년기의 방향을 그린 1부와 출가·교행·깨달음의 과정을 그린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울리스즈 펴. (p.p 180, ISBN 1569751366)

차별과 더러움의 종교연구
종교학이나 민속학의 영역에서 '차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차별과 더러움의 종교연구>가 나왔다. 저자 문마코오후(門馬幸夫)씨는 서문에서 "종교학이나 민속학에서 차별의 문제가 적극적인 테마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차별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 전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책은 차별의 문제에 대해 논리적 기초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암전서원(岩田書院) 펴.

자기찾는 공부 지름길 제시

‘참선요지’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참선의 목적은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오염이 없다면 진실로 자기 본래 성품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참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참선을 하기란 어렵다. 이런 때 옛 조사스님의 가르침은 분명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나를 찾고 싶다.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 그리고 인생의 지표표를 세우고 싶다. 최근 절에서나 집에서나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선요지>는 갈로수나 다름없는 지침서이다.

여시아문이 펴낸 <참선요지>는 참선의 진수를 펼쳐 보인다. 하지만 진수만이 아니다. 참선의 목적과 참선을 하기 위한 선결요건, 화두참선법 등 참선을 힘고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주옥같은 설명들이 곁들여져 있다. 여시아문의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선(禪)편의 첫 번째 권.

이 책은 중국 허운스님의 참선에 관한 법문이 담긴 <허운 노화상 연보법회>(대만 수원선원 판)의 본문을 대성스님(길상사)이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 허운스님이 선방에서 한 소창법문인 '선찰법문'과 함께 연보의 내용 일부를 간추린 허운스님의 약전(略傳)도 포함시켜 놓아 허운스님의 행장을 따라가며 선을 이해할



다'라는 의미다. 허운스님은 이 두 구절이야말로 참선의 선결조건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참선에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의 방편으로 화두참선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초심자는 초심자대로 구참자는 구참자대로 어려움이 다르기 마련.

허운스님은 이를 경계하기 위해 화두드는 법을 제시하면서 공부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인과를 깊이 밟고 계율을 엄히 지키며, 심신을 굳게 지키고 한 가지 법문을 정해 꾸준히 수행하라 고 가르친다. 이 책 제1부에서는 이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으며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부에는 허운스님의 선찰법문(禪七法門)이 모두 16장에 걸쳐 소개돼 있는데 선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금쪽같은 법문들이 다. 비교적 평이하면서도 여러 경전 어록의 증해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어 참선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로 여겨질 만하다.

참선은 흔히 쉽고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어렵다 해도 뜻을 굳게 있는 법. 대성스님은 "참선에 뜻을 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워 주고 공부 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값 5천5백원.

한영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참선의 목적
참선위한 선결요건
화두참선법 등
이해쉽게 설명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역자 대성스님은 "선에 대한 조사스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이 많지만 그 중에서 허운스님의 가르침은 경이하면서도 명철한 논리를 지니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말한다.

참선요지와 선찰법문은 참선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알기 쉽게 갈래지어 초보자들도 이 공부법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구에는 주를 달았으며, 권말에 어휘 해설과 인명 해설을 부록으로 붙여 이해를 도왔다.

스님은 참선의 선결조건으로 망상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설한 '힘이 곧 깨달음(歇即菩提)'이라고 하신 '힘(歇)'이란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달마조사가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썰어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같은 의미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힘'은 '놓아 버린

허운스님은 누구

근·현대 중국 선풍 중흥시켜

허운스님(1840~1959)은 근·현대 중국의 큰 선지식으로서 거의 쇠잔해 가던 중국의 선풍(禪風)을 다시 중흥시킨 거목이다. 19살 때 출가해 제반 경론 등을 학습하고 화두공안을 꾸준히 참구해 대오견성(大悟見性)하였다. 참회 발원과 염불 수행(念佛)만 아니라 계율을 엄히 지키고 사부대중에게도 계(戒)의 중요성을 누누이 설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범망경>을 널리 강의했던 스님은 종문(宗門)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풍을 다시 일으켰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 하에서도 승도(僧徒)를 수호하고, 사찰과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많은 가람을 복원했다. 스님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재가자는 이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서울대 출판부 '한국고대불교사' 펴내

러시아 학자 눈에 비친 '한국고대불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한국고대불교사>는 한국 고대불교교단의 역사를 개관한 5종의 한국 고대불교사 개설서다. 주로 교단의 구조, 승자도, 교단과 국가의 관계, 사경제, 한국불교의 대외적 역할 등 교단사와 관련한 주제에 집중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고대사 개설서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교단과 역사가 모두 러시아 학자의 점이 특이하다. 블코프 교수(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학 한국학 국제학술센터 교수)와 역자 박노자 교수(러시아어·티호노프·경희대 러시아어·전임강사)는 제자와 스승 사이로 러시아에서 한국고대불교사를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학자들이다. 이 책은 러시아어·한국학계에서 한국 고대불교 관계의 최초의 단행본으로, 러시아의 한국학계에서 기본 한국사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고대 불교교단사를 세계불교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접근방법도 특이하다. 한국 고대 불교를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불교권의 일부로 파악하여 정치와 종교 관계의 모형을 '국가 보호에 대한 교단의 의식(儀式)적 보답' 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중국과 일본의 불교는 물론 나아가 동남아시아 불교와도 비교 검토하는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한국불교 연구수준과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불교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책이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산에는 꽃이 피네', '서장', '산은 산 불은 불'.

청소년 권장도서 150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98년 청소년 권장도서 1백50종을 선정 발표했다. 문학 철학 역사 등 모두 11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된 청소년 권장도서에는 법정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를 비롯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채우는 불경이야기>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10여종의 불교 관련 양서가 포함돼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들 권장도서에 대한 간결한 내용을 실은 <1998년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목록을 배포했다.

법화경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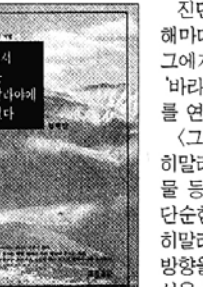
법화경 성립배경-특성 등 소개



불교경전중 가장 넓은 지역과 많은 불자들에게 의해 수지·애호 되고 있다. 이 책은 해량스님(법화경학술연구원장)이 펴낸 입문서. <법화경>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화경>의 성립 배경에서부터 경의 구성과 흐름, 특색 등을 설명해 놓은 것이 특징. 그러나 학술적 탐구가 아닌 경의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법화경>공부와 법화사상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곁들였으며, 경의 흐름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은 도표를 그려 이해를 도왔다. <수미산, 7천원>

그래서 나는 히말라야에...

거대한 자연에서 느낀 삶의 방향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인 임현담씨는 해마다 히말라야에서 한철을 지낸다. 그에게 히말라야는 '오르기'가 아닌 '바라보기'의 대상이다. 그는 히말라야를 연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히말라야에 빠졌다>는 히말라야 기행기다. 볼 만한 경치나 풍물 등이 재미있게 소개돼 있다. 하지만 단순한 기행기가 아닌 구도기행기다.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가 자연을 보는 시선은 단순한 객관적 대상이 아닌 화엄의 세계. 기계론적 우주관을 거부하고 불교의 유기체적 우주관을 따르고 있다. 삶에 대한 진지한 자제와 불교의 세계관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효형출판, 8천원>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판과 사판의 질서 필요한 때



'이판사판'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후의 선택을 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 원래는 공부하는 스님을 비판, 살림을 맡아보는 스님을 사판이라 했던 승가조직에서 유래한 말이다. 저자 박승원씨(시스텔경영연구소 대표)는 국민의 공통 화두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이판과 사판의 도리에 맞추어 설명하면서 원용, 화쟁사상을 통해 이들 문제의 '제자리 찾기'를 강조한다. 에세이식 형식의 칼럼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함마저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이판사판'이야말로 새로운 직업 윤리이자, 미래 사회의 질서임을 역설한다. <현암사, 7천원>

Large advertisement for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300 precious teachings from Buddha). Includes text about daily practice, a list of 300 teachings, and publisher information (Minjoksa).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깊어지면 애정이 싹트고 애정이 깊어지면 고통의 그림자가 뒤따른다. 인생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분하게 들춰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46만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반드시 주문받으십시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하십시오.